

## News

### 금감원, '라이프 사태' 관련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려

한국경제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회의를 종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혀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이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증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였다.

### 취약업종 대출 물리는데...당국은 무분별 지원 고수

매일경제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금융권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은행의 기업 원화대출 잔액은 995.3조원으로 전달보다 8.9조 늘었는데, 증가폭의 94.4%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쏠려 있다는 점

### 금융당국 증금리 구간 낮추기 작업 착수

e대한경제

증금리 대출구간은 은행권이 6~10%, 저축은행은 11~1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증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1~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시중은행의 증금리대출 판매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어 은행권의 증금리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인터넷전문은행에 증금리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줄 것을 주문한 상태

### 비트코인으로 돈 벌자...2030세대 케이뱅크로 몰려갔다

한국경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030 세대 투자자를 대거 끌어들이면서 급성장. 지난 1~2월 케이뱅크 신규 발급자는 92만. 동기간 카카오뱅크 신규 가입자 38만 명의 두 배 상회

가입자 대폭 증가한 이유가 암호화폐 때문만은 아니라고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려고 가입한 고객이 높은 예·적금 금리 등을 체감하며 입소문을 냈고, 유입 고객이 더 늘었다는 것

### 차별화=생존, 보험 '배타적 사용권' 붓물 예사롭지 않다

이코노믹리뷰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데 적극적. 시장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이 선점경쟁을 벌이는 것.

18일 기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생명보험 3건, 손해보험 7건. 생보사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분기 만에 3건이 신청됐다.

### IPO 시장 활황에 올해도 주관사 경쟁 '치열'... 미래에셋대우 선두

서울파이낸스

지난해보다 많은 기업들이 상반기에 공모시장에 진입. 증권사간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경쟁은 올해 들어서도 격화. 올해 1분기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많은 기업의 상장을 주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펙과 분할상장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총 24개로 집계

### 서슬퍼런 금융당국 경고에... '달러보험' 못 내놓는 삼성생명·한화생명

머니S

최근 금융당국은 달러보험을 판매 중인 일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상당수 문제점을 발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달러보험 출시 철회 또는 연기.

지난 2017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은 323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기록

### 카카오페이증권, 세 번째 유상증자...MTS 혁신 '가속도'

뉴데일리경제

카카오페이증권이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작년 2월 카카오페이로 대주주 변경 이후 세 번째 유상증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강화 등 본격적인 디지털화에 나선 가운데 연내 론칭 예정인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개발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